

제주인의 시대정신

송 성 대

1. 지역정신 담론

헤르데르는 “역사(曆史)는 정지된 지리(地理)요, 지리(地理)는 정지된 역사(歷史)다.” 라고 했지만, 차라리 ‘시간(時間)의 지리(地理)’요, 지리(地理)는 ‘공간(空間)의 역사(歷史)’다” 라는 말이 두 주제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에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헤르데르의 그 말은 시간이라는 수직축(인간의 입장)과 공간이라는 횡축(환경의 입장)이 만나는 교점에 두 주제가 합치됨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들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학과 지리학은 인간의 모든 시공간적인 사상(事象)을 저마다의 입장에서 마치 숲을 보듯이 종합적으로 파악 제시하게 되며, 때문에 바른 독서 방법에서 지리서와 역사서를 맨 먼저 읽으라 하는 것이다. 이로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 연구활동을 하는 역사학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그 인간의 일을 공간상에서 어떻게 구현해 왔고, 구현하고 있느냐에 대한 잡다한 사상에 대한 시간적 기술이요, 사회적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리학도 공간기술이라는 데에서 역사학과 차별화가 되나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시대적 상황 기술과 사회적 설명을 요한다는 데에서 유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리학이 일찍부터 시제상 현재완료의 의미를 갖는 전통적 문화사상(文化事象)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삼무정신이 제주인이 정신이라 합의 공간된 이래 지역사회의 각급 학교 모두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이 정신을 현양시켜야 된다는 운동이 있어 왔고, 또 그 캠페인은 전 국가적인 새마을 정신의 덕목과도 관련되면서 확대되어져 갔다. 제주인의 얼과 나아갈 바를 밝히는 제주도기의 별칭은, “삼다 속의 순결한 도민”임을 표상했기에 ‘삼다 삼무기(三多三無旗)’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청소년 학생과 초·중등교사들이 정례적으로 연수를 받는 제주도 청소년 교육의 총본산인 <탐라교육원>의 본관 건물 이름은 ‘三無閣’이며, 개원기념비에는 삼무정신을 고취하는 당시 교육감의 비문이 있어 삼무정신교육의 위상이 얼마큼 중시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이에 맞추어 제주도의 초·중등학교의 교사들은 제주인의 삶의 계율로서 삼무정신을 덕목으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데에 여념이 없었고 아울러 이에 대한 연구의 발표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삼무정신은 ① 정체성 확립 ② 지역적이면서 보편적 행동지침 ③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역동적 힘 ④ 지역 공동체 의식 고양 ⑤ 미래 지향적 등의 5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에서 이념(ideology)으로서의 정신(geist)이 아닌 계율(3NOTS' COMMENDMENTS)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변혁기 내지는 세계화를 강하게 지향하고자 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그러한 계율적인 정신을 가지고는 시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제주인의 삶의 계율인 삼무정신을 이끌어 내는 데에 배경이 된 제주인의 심성은 어떻게 말해져 왔는가를 보자. 일제시 이방인인 일인들과 석주명의 저서에 나타나고 있는 제주인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생활력이 강하여 활기가 있다.
- ② 의뢰심이 적고 자영자족(自營自足)을 존중한다.
- ③ 근검질실(勤儉質實)하여 경제사상이 발달해 있다.

- ④ 전통적으로 기개(氣概)가 부(富)하고 용맹하다.
- ⑤ 위기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단결을 잘한다.
- ⑥ 배타성이 있다.
- ⑦ 자존심이 강하다.
- ⑧ 시의심(猜疑心)이 강하다.
- ⑨ 공존공영심(共存共榮心)이 약하다.
- ⑩ 표한(標悍)·방사(放肆)하다.

위의 제주인의 성격은 상대적 비교이다. 물론 그 주 상대는 한반도부의 동족취락을 이루며 살아 온 논농사지역민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한반도의 사람들은 제주사람들과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이에 대해서는 신채호의 '신국민론'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는 「대한매일신보(1910. 2월)」에서 “우리에게 정신, 실력, 문명 등이 있는가? 오직 도덕이 부패하며, 경제가 곤궁하며, 교육이 부진하며, 모든 권리가 타인의 손에 돌아가며, 인민의 기상의 타락이 극도에 이르러 있을 뿐이다. 보이는 바와 매우 쓸쓸하며 들리는 바가 처량할 뿐이다.”라 하였다. 한편 도산 안창호는 한국인들로하여금 “매사에 남의 일처럼 임하지 말고 ‘주인정신’을 가져야 하며, 또한 거짓행치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서의 ‘무실역행(無實力行)’해야 한다는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을 폈지만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한국민의 심성이 어떠하였는가를 간파할 수 있다.

2. 자립·자존심이 강한 섬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도 제주도는 비록 비옥도가 낮으나 총경영지 면적 중 개간 경작 가능한 야초지가, 다른 지역은 1%도 안되나 제주도는 21.2%나 되고 있다. 즉 한반도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는 한라산의 산록에 넓은 무주공야(無主空野)의 용암평원이 있어 비록 비옥하지는 못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개간 경지화하여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바로 그 이유가 제주도에는 전통적으로 소작인이나 머슴은 물론 삼무의 섬으로 불리우는 것처럼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거의 없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빈부의 차를 크지 않게 하여 구성원간의 갈등을 저감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왕토사상이 있었던 조선조 때의 토지 소유관계가, 토지 생산력이 극히 높은 논농사 중심의 한반도에서는 '국가적 영유 - 지주적 소유 - 소작농적 점유'라는 중층구조였다면, 변방이며 열악한 토지 생산력을 갖는 제주는 '국가적 영유 - 자작농적 소유'라는 단층구조를 가졌던 것이 제주로 하여금 농노적 소작세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분권봉건제(分權封建制)의 전통을 갖는 유럽이나 일본의 성벽으로 에워싸인 장원과 달리, 집권군현제(集權郡縣制) 하에서 성벽으로 둘러싸이지 않고 열린 한국형 봉건 장원이라 할 '무성장원(無城莊園)'내의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소작인으로 이루어진 소강사회(小康社會 ≒ 자본주의)의 상황과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특히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부의 논농사지대가 사대부처럼 '호강(豪強)'이라 불리웠던 지주가 5%, 자작농 25% 그리고 나머지 70%가 머슴에 가까운 소작농으로 피폐가 심하여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호강과 그 밑에 있는 악명 높은 세리라 할 마름에 대부분의 농가가 시달린 것과 비교 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까지도 한반도에 흔하게 나타났던 소작쟁의가, 소작인이 거의 없어 대동사회(≒ 사회주의)의 성격이 강했던 제주도에서 한 건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도의 토지소유가 단층구조라는 것은 곧 누구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을 자신이 모두 소유한다는 데 오늘날 의미의 준법투쟁이니 태업이니하는 식의 게으름이나 의존심리는 나타날 수 없고 대신에 생활력이 강한 근검·절약의 성격이 형성되게 된다. 여기에 문전옥답이라 불리우는 바와 같이 한반도는 결집경지전작경영(結集耕地田作經營)을 하게 되고 여기에 다동분립

형(多棟分立型) 살림집 구조 등에 의해 대가족제가 아닌 부부중심 가족제로 가게 되어 신거제(新居制) 내지는 은거분가제(隱居分家制) — 통칭하여 직계별거가족제 — 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인은 자립·자존적인 되어가 제주에는 '시집살이'이나 '며느리살이'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살애비속(殺父俗)'인 '고려장'이나 '살아속'이라 하는 것도 없었다. 전형적인 제주인들은 노인들의 의존성을 조장하는 경노효친 사상은 한낱 공념 불로 치부해 버리고 노년사고(老年四苦)인 빈한고(貧寒苦)·병약고(病弱苦)·고독고(孤獨苦)·무위고(無爲苦)를 무의기개로 자립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

3. 경쟁과 연대의 조화

제주는 '태왁'과 '덕판배'를 타고 동아시아 바다를 누빈 해민들의 애환 섞인 질은 역사가 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양반 의식에 사로잡힌 많은 반도인들은 제주 섬사람만 보면 모두 해민(海民)인 '보재기(鮑作人=漁夫)'로 보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는 하였다. 보재기 멸시의 해민 천시 사상은 유감스럽게도 양반이 없었던 제주인들 속에도 있었다. 그래서 제주인들 중에서도 양반인연한 — 제주에는 양반이라 해야 고작 향교 관여자들 뿐으로 그들은 반도부의 양반들과 달리 상민들과 똑같이 육체적 노동도 했지만 — 중산간부락(陽村·山村)의 반농반목민(半農半牧民)은 해안촌락(갯마을)을 '포촌(浦村)',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알뜨르 보재기'라 하여 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20년 해안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먼저 개명되기 시작한 해안으로 인구이동이 일자 이번에는 요수(樂水)하여 지자(知者)가 되었던 반농반어민인 포촌사람들은 요산(樂山)하여 인자(仁者)가 되었던 중산간부락(산마을) 사람들을 '웃뜨르 촌놈(山居野

人)’ 혹은 ‘웃뜨르 테우리(마소를 모는 목자라는 뜻)’라 하여 천시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중산간부락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부락은 ‘양촌(良村 혹은 陽村)’이고 양반들이라 자위하였다.

빈번한 왜구의 침입이 두려워 산불근 해불근(山不近 海不近)의 지리적 입지 사상에 따라 형성된 중산간촌은 1980년대까지도 단오나 한식명절까지 지내 온 보수의 유교문화지대였다. 그만큼 중산간 촌락민들은 문화변용에 둔감하였다. 그러나 바다를 무대로 생활해서 침입해 오는 왜구를 피하기보다는 항상 맞싸울 의지를 갖고 있었던 포작인들의 투쟁적인 포촌은 그보다는 생업과 관련된 영등신(風神)에서 보는 것처럼 활달한 무교문화지대(巫敎文化地帶)였다. 이들 해촌과 산촌간에는 혼인조차 거절할 정도로 이질적 요소가 많았다.

농경에서 풍흉은 누구에게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나, 바다에서는 풍흉은 있다하더라도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입은 달라진다. 즉 해산 활동에서는 자원이 있는 수역의 탐색 판단력도 개인에 따라 극히 달라진다는 것으로, 그것은 해민사회가 보다 기회 균등한 조건에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실력사회(meritocracy)로 가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쟁의 원리는 - 제주인 각자가 ‘개체적’임을 인식한다는 뜻이지만 - 위대한 학자 내지 사상가에 의해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 합의된 당연한 천리였기에 불만이란 있을 수 없었다. 특기해 둘 것은 제주인들이 하는 그 경쟁은 ‘갈등 없는 경쟁’으로 - 개인경기가 아닌 단체경기에서 보여주는 팀 구성원간의 내재하는 팀워크처럼 - ‘친화 속의 경쟁’이었기에 그것은 ‘연대의 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모른 인류가 지향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연대의 원리는 ‘대동(大同)’이라는 이념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원리이다.

4. 충효사상은 동족취락민의 이데올로기

충효교육의 충과 효는 - 한국의 역사에서 볼 때 - 서로 양립불능한 배반사상으로 치부해도 좋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충효 실행의 선후관계를 모른 채해서 어정쩡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애국가나 역사에서 증명되는 것은 글자의 순서로 봐서 한국적 이데올로기는 선충후효(先忠後孝)지만 양자가 상충할 때는 늘 선후후충을 해 온 것이다. 난세에 영웅과 성인이 난다고 하는 바와 같이 “가난한 집에 효자 나고 어려운 나라에 충신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상 충신이 필요 없는 나라, 효자가 필요 없는 나라야말로 충신과 효자가 으뜸시되는 나라보다 훨씬 살맛나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의 지성들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선조들이 “부모가 효자를 저절로 만든다.”라고 한 말을 또한 명심해야 한다.

문소정은 한국에 있어서 가족규범이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폐기되지 않고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발전되어 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권력유지의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왔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세대간의 권위주의적 관계를 규정하는 전통적인 ‘효규범’은 노동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가정내에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정함으로써 이를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삼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역대 지배권력은 ‘장한 어머니상’, ‘효자효부상’등을 포함함으로써 특히 여성의 현모양처규범과 효규범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화시켜 나아갔다고 한다.

냉전을 하고 있는 남북한이 단일민족으로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양쪽 모두 충효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통일문제연구소>가 내놓은 “忠孝 앞세워 권력세습 정당화”라는 제하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 이 忠孝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김정일이 이미 군최고사령관으로 실권을 행사하므로 국가주석이나 당총비서를 당장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도 북한 주민들은 승계를 미루는 김정일을 도덕적으로 높이 본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그의 조상에 효성을 다하고, 이를 김정일이 그대로 본받고, 다시 당간부, 그리고 인민에까지 내림이 되는 정신적 승복장치가 '충효'인 것이다.

이는 조지 오웰이 그의 정치소설 「1984」에서 “당은 조직적으로 가족적 유대를 약화시키면서 가족적 충성을 호소할 수 있는 이름으로 당의 지배자(BIG BROTHER = 悌)를 부르게 했다.”는 내용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 다소 설명을 요하는 이 메세지는 “이중사고에 의한 모순을 조화시킴으로써만 이 권력을 영원히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이 모두는 충효이데올로기는 묘한 함정(이중사고)을 시사하고 있다는 데서 의미 심장한 내용이다. 오스트리아의 사회경제사가인 미떼로(M. Mittereau)도 맹목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강화시키자는 요구가 전체주의나 파시즘 운동의 계획안건에 끊임없이 등장한 항목이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라 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7천만 인구 모두가 스스로 양반이라고 자처하는 한 국민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한 '군사부일체(軍事父一體)' 사상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오직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시 강조하지만, 동성동본 금혼제(민법 809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인들의 이념 지향이 맹목적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이념이 왜 한 반도에서만 생겨났는지에 대한 지적 탐구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5. 제주이즘으로서의 해민정신(Seamanship)

제주를 지탱해 온 그들 용감한 포작인 집단은, 한국이 금시대의 시대정신을 신유교윤리 - 하버드대의 투 웨이밍 교수와 라이샤워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기독교윤리와 교윤리가 접합된 윤리 - 에

서 찾고 있지만, 이미 그것을 개체적 대동정신(Individual Collectivism)의 형태로 지니고 있었다. 자립은 개체가 전제된 것이지만, '개체적'이었기에 심백(경쟁)이 있는 민주적 실력사회(meritocracy)가 되었고 '님의 대동(大同)'하자고 했기에 평등사회를 이루었다.

경쟁을 전제한 평등사회에서 수직적이고 신분적인 예절보다는 예티켓이 중요하다. 제주인의 정신은 즉자적 대자(卽自的 對自 = 나와 나 아닌 나에 대한 인식), 부연하면 "사람들 모두 서로에 대해 자유(自由)롭고 평등(平等)하자"는 해민정신(海民精神: Seamanship) 바로 그것이었다. 자유로우려면 개체적이어야 하고 평등하려면 대동해야 한다. 그래서 해민정신은 개체적 대동주의, 즉 제주이즘(Chejuism)이 되는 것이다. 해민정신과, 제주이즘은 한반도 부의 '선비정신'과 '가족적 대동주의'와 대비되는 정신인이다.

제주인 그들의 자립·개척·자유정신에서 '개체적'임이 확인되고, 총유공영(總有共營), 품증구휼(稟贈救恤), 무문신뢰(無門信賴), 백조일손(百祖一孫), 조신합제(祖神合祭) 정신에서 '대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신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보편정신임에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제주선인들의 광풍축석(狂風矗石)과 같은 무의기개(無依氣概)의 도혼(島魂)이다. 따라서 이 해민정신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제주인들에게 '이어도(礫島)'를 향해 자강불식하라는 화두로서의 훈화적 메시지요 유산인 것이다.